논어 10편 향당 1장 · 원문·풀이

孔子於鄕黨，恂恂如也，似不能言者。其在宗廟朝廷，便便言，唯謹爾。

독음 · 공자어향당 순순여야 사불능언자 기재종묘조정 변변언 유근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고향에서는 순박하고 말을 못 하는 듯 조심했으나, 종묘와 조정에서는 분명히 말하되 삼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鄕 시골 향

黨 무리 당 당 / 恂 진실할 순 순 / 如 같을 여 여 / 也 어조사 야

似 같을 사 사 / 不 아닐 불 / 能 능할 능 능 / 言 말씀 언 언

者 놈 자 / 其 그 기 / 在 있을 재 재 / 宗 마루 종 종

廟 사당 묘 묘 / 朝 아침 조 조 / 廷 조정 정 정 / 便 편할 편 편

唯 오직 유 유 / 謹 삼갈 근 근 / 爾 너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